

학술분야소식

□ 보수교육 10 시간 미필자 필히 이수할것을 촉구, 전국 미필자 965명에 공부하는 치과의사상 확립과 불미한 사례 없도록 당부.

齒協은 올해 보수교육의 10 시간 이수시간에 미달되는 회원에 대해 올해 안으로 10 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전국회원에게 촉구했다. 齒協의 이같은 촉구는 치과의사 의무보수교육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된 만큼 공부하는 치과의사 상의 확립과 함께 보수교육미필로 인한 불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서 10 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이 부족한 회원은 앞으로 12 월말까지 전국지부 및 분회별 또는 분과학회·치과대학등 보수교육기관에서 계속 실시되는 보수교육에 참가토록 거듭 촉구했다.

지난 10 일 현재 올해 이수시간 10시간의 미이수자는 모두 964 명으로 서울 510 명, 부산 150 명, 대구 104 명, 인천 3 명, 경기 41 명, 강원 10 명, 충북 8 명, 충남 24 명, 전북 50 명, 전남 27 명, 경북 25 명, 경남 12 명 등이다.

齒協의 「치과의사 보수교육지침」에 따르면 교육기관별 年上限시간은 齒協종합학술대회 3 시간, 지부 7 시간, 전분과학회 3 시간, 전치과대학 3 시간, 기타 기관 3 시간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소속지부의 필수시간을 2 시간으로 규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 22 권 p.931 참조)

□ 치의학 용어 제정 심사착수, 15 개 분과학회에서 제출된 용어 총 14,464매.

齒協은 지난 17 일 齒醫學用語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用語제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각분과학회에서 제출된 용어의 심사기준을 일부 마련했다.

金英海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용어제정의 심사기준으로 치과에 직접 관련된 용어를 일반 醫科나 과학용어집에 사용되는 단어보다 우선해서 채택키로하고 고유명사는 가능한 한 삭제하되 주로 어간을 사용키로 했다.

또 현재 제출된 용어중 중복된 용어는 심사, 정리하되 각 단어마다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편의를 도모키로 하고 알파벳 순으로 일정기간 심사키로 했다.

지난 17 일 현재 15 개분과학회로부터 제출된 용어는 총 14,464 매로 보철이 2,961 매로 가장 많다.

(서울치대 교수)씨를 선임하였다.

◎ 대한치과교정학회 제 17 회 정기총회개회
새회장엔 南東錫(서울대)교수 선임

大韓齒科矯正學會 제 17 회 학술대회 및 제 22 회 정기총회가 지난 1 일(토요일) 서울 올림픽아 호텔 2 층 아폴로룸에서 열려 새회장엔 南東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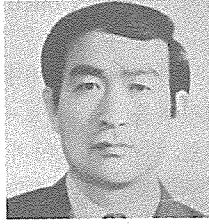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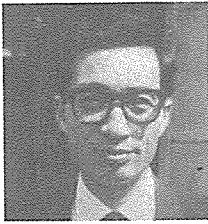
오후 2시 종합학술대회에 이어 5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총회는 금년도 결산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12,892,000 원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으며 임원개선에 들어가 새회장엔 南東錫 교수를 선출하고 감사엔 李成護·成在鉉씨를 각각

12월 7일 아람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회원 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84년도 정례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동 학술집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자 : 이한수박사(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연제 : 히포크라테스치과학설의 제요 및 그에 대한 평가

일시 : 1984년 12월 7일 아람문화회관 회의실



〈연자 李漢水회장과 金正均회장〉

◎ 대한소아치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새예산 676만원 확정

大韓小兒齒科學會(회장 孫同鉄)는 지난 8일 서울대학병원 지하 1층 C강당에서 학술집담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 새해예산 676만여원을 집행부 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총회에 이어 열린 학술집담회에선 홍창의교수(서울의대소아과)의 「소아심장질환과 치과치료」에 관한 특강이 있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형두씨(지도교수 차문호)의 「치과치료시 미취학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대한구강보건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료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金晁中)에서는 지난 8일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 구강보건학회 定總·학술대회.

한 바 있다. 이날 총회는 새해예산 384만여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새해엔 학술집담회에 더욱 힘을 기울여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학회지를 발간 배포하고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워크샵을 갖기로 했다.

특히 이날 定期總會에선 새해부터 학술집담회에서 구강보건 개발의 기본방향, 식이조절법, 상수도 불소화 추진방향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업무개발, 구강위생재료 분석평가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김진범씨(국립보건원)의 「비도시지역 주민의 구강보건진료기관 접근시간별 1차구강진료소비도」에 관한 특강에 이어 기타 연구논문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동 학회는 새로 學會誌를 발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회지엔 李光熙교수(現: 圓光大齒大)의 「10대 학생의 섭식실태조사 연구」등 10편의 논문과 회원명부등이 실려있다.

◎ 대한치과이식학회 브레이드 임프란트 연수회

大韓齒科移植(임프란트)學會(회장 金鴻基)는 제13회 「브레이드임프란트研修會」가 지난 8~9일 이틀동안 강남성모병원에서 관심있게 열렸다.

22명의 회원이 참가한 연수회는 브레이드임프란트에 대한 강의와 영화·슬라이드·동물수술·임상수술등으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총연수자는 240여명에 이른다.

한편 이식학회는 지난 4일 성모병원회의실에서 6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아파타이트」(金鴻基)·「하악 Staple Bone Plate」(金光男)등 2개 연제가 진행된 학술집담회를 가진바 있다.

◎ 대구직할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대구지부를 비롯한 부산, 경북, 공직회원도 참석.

81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된 大邱齒科醫師會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5일 대구수성관광호텔에서 대구회원 130여명을 비롯 부산·경북

공직회원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학술 대회는 齒協 李永玉회장 尹大榮의장등 전임원진과 卞鍾秀경북치대학장이 참석, 吳鍾錫 대구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술을 통한 대화의 광장으로 천목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강조했고 齒協 李永玉회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학문의 교환으로 공부하는 치과의사상을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근관처치의 최근 경향」등 3개 연제가 관심깊게 진행됐다.



< 학술대회 석성에서 뒤편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

◎ 대한치과교협회 제 5 회 정기총회

새회장에 강효식씨 감사에 양원식 · 김영수씨 선임. 총예산 256 만원 승인.

大韓齒科咬合會 올해(제 5 회) 정기총회가 지난 16 일 삼정호텔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姜孝植씨를 선임하고 회무활성화를 다짐했다.

金英海서울치대 학장, 尹仲鎬연세대 학장, 梁棟奎 부산치대 학장, 鮮于良國단국치대 학장 등 관계내빈과 80 여 회원이 참가한 이날 총회는 3,516 천원의 지난해 결산액을 승인하고 회원당 연회비 10,000원 입회비 10,000 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256 만원의 새회기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총회는 김승재씨등 6 명에게 표창장을, 김오환 전북치대학장에게 공로패를, 윤창근교수등 25 명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하고 감사에 梁源植 · 金英洙 교수를 선출했다.

◎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 학술집담회를 겸한 송년회 성료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회장 閔丙一)에서는 지난 12월 13 일 Lotte Hotel 에 메탈드룸에서 회원 85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학술집담회를 겸한 송년회를 가진 바 있는데 학술집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자 : 李相喆교수(경희대 치대 구강외과)

연제 : TMJ Concussion 및 최근 일본구강외과학의 동향

또한 학술집담회를 마치고 화기에애한 송년 만찬회를 가짐으로써 1984 년도를 뜻있게 보내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학술집담회 광경 >

◎ 대한치과기재학회 학회지 발간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 金哲偉)에서는 지난 82,83 년도 동 학회 회원의 연구업적을 한데 모은 학회지를 발간, 회원은 물론 관계학회 및 제 인사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동 학회지는 단국대치대 선우양국학장의 연구 논문을 위시한 교수 연구논문 5 편과 치과주요 용금합금규격소개 · 치과용 기자재 품목별 허가 현황 · 치학연구소 소식등을 게재, 치과재료학 연구원과 재료업체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6 배판, 고급 모조지 총 80 면.

◇認准前 學會 명칭 사용불가 촉구, 既存學會와 混同우려, 다른 명칭 사용토록

齒協은 인준을 받기도 전에 「학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존학회와의 혼동은 물론 「학회인준규정」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같이 「학회」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촉구한 것이다.